“엉뚱한 장단에 춤추나, 파괴 없인 유신 없다”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서 재가자들 강경 발언 이어져… “한국 불교 감동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불교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토론회에서 재가자들은 불교계 전반의 대규모 혁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이어갔다.

곽병찬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조계종이 과연 쇄신할 자세가 돼있는가”라며 “21세기 한국불교 새 디자인하겠다는 것이 맞나? 이를 위한 대토론회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자기 반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곽 편집인은 “종단의 가장 큰스님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고백하고 나설 때, 종단 대표기구에서 그런 성찰이 제기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공연한 장단에 엉뚱한 춤이나 추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곽 편집인은 1965년 가톨릭 쇄신을 이끈 2차 가톨릭 공의회의 전개과정을 예로 들며 이번 토론회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곽 편집인은 “당시 가톨릭 공의회의 참석자는 단지 가톨릭 성직자와 신학자 만이 아니었다. 러시아 정교회, 콥트교회, 시리아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등 다른 종파 및 다른 교회 대표들이 초청받아 옵서버로 참관했다. 한때 이단으로 단죄했던 이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석해 교파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이면에 각 교구의 이해가 갈리고, 천태종 등 다른 종단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선언하는 등의 불교계 입장 차이를 짚은 것이다.

곽 편집인은 끝으로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을 들며 “파괴가 없이는 유신이 없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종교본연의 감동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는 역으로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해 감성이 들어설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다.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을 위한 감성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감성의 복권을 위해서는 사찰건물과 법당의 건축양식, 심지어 승복과 같은 스님들의 일상까지 변화와 쇄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2011년 한해동안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대표스님들과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와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행사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2월 23일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 스님이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에 대해 발제하며, 3월 30일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이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의 자가진단이 빠졌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 응 스님

“근원적인 성찰을 하려면 이 시대의 종단이 나아갈 방향과 무엇을 성찰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했다. 기획은 좋았지만 핵심이 빠진 토론회였다.”

법응 스님은 한국불교중흥 토론회가 핵심이 빠진 채, 말만 무성한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고 평했다. 물질문명이 넘치는 첨단의 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못 했고, 현재 조계종의 교학·교리 시스템이 지금 시대에 합당한지 점검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응 스님은 이 날 토론회가 진단도, 대안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종단의 시스템과 권력구조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는데,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스님은 근본적 성찰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자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객석과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고, 사전에 토론회 내용을 공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응 스님은 “2월 토론회는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열리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첨예한 사안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이번 토론회 주제였던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종단과 집행부가 얼마나 솔직한가 하는 점이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확실한 답이 나온다.” 박기범 기자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다”

홍 사 성 불교평론 주간, 열린논단서 강조

조계종이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토론회를 매달 실시하는 등 불교 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쇄신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이 아닌 열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1월 20일 불교평론 회의실에서 마련된 열린논단에서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주간은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한국 불교가 수행의 목적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주간은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오해에서 한국불교의 문제가 발생한다. 깨달음의 성취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교리적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사성 주간은 “감추지 말고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툭 털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부처님 뜻에 맞는 방법인지 정리해야 한다. 그 지평 위에서 포교를 하든 수행을 하든 해야 법륜(法輪)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 글은 그 출발선상으로 불교를 끌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화두다”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지금 페이스북 부루나에선

에로영화 제목에 Zen(禪)이?

페이스북 부루나 ‘Zen’ 용어 오·남용 토론 진행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Zen(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특히 뉴욕에서는 가구, 인테리어 또는 식당을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미고 “젠 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뉴요커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뉴요커들은 ‘Zen’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서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을 보면 ‘Zen Style(젠 스타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권에서 제작한 에로영화에 Zen이라는 단어가 붙어 개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개봉돼 화제를 모은 홍콩 에로영화 〈옥보단〉이 3D영화로 제작돼 오는 4월 〈3D Sex and Zen〉 한국에 개봉될 예정이라는 것.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같은 ‘Zen’의 오·남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S씨는 부루나에 “2000년 벽두부터 소위 ‘Zen Style’이 뜨면서 곳곳에 이 단어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에로영화 옥보단의 영문제목이 ‘SEX & ZEN’이군요! 세상에 이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인지! 선이 주목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불교나 수행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업적 논리에 나포되어 버린 느낌이다”라고 게재했다. 이어 S씨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 가면 SEX AND ZEN이란 제목이 들어간 책이 여러 권 검색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꼭 이런 엉뚱한 것이 더 발전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Zen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만큼 선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선(ZEN)’이라는 단어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게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스티브 잡스 iMIND〉라는 책을 읽었는데 코분 치노라는 일본 선사가 잡스의 멘토였고, ‘간명직절(簡明直截)’의 선 정신이 잡스의 중요한 디자인 철학이라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복지계, 연휴 잊은 이웃사랑 실천

설 맞이 행사 풍성
명절 의미 되살려

불교계 복지 기관들이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설날 행사 ‘일곱 빛깔 어울림 한마당’을 1월 28일 63시티에서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화호텔&리조트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각국의 놀이 체험과 동요노래자랑이 이어졌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호 월서 스님은 27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월서 스님은 매년 성북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6년째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동행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자승 스님은 설을 앞두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활동에 참여했다. 자승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24~28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만두를 빚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설의 의미를 되새겼다.

화계사(주지 수암)도 27일 논산훈련소 법당신축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한말선(대법성) 신도회장 및 부회장단이 참석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기범·이은정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 석혜오, 석능현, 석윤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원로회부회장 석만월 대종사
승정원장 석원정 대종사 총무원장직무대행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종 사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종회의장 석법일 대종사 호계원장 석무공 대종사
감찰원장 석다우 대종사 감찰국장 석법진 종 사 호법원장 석원명 대종사 호법부장 석대연 종 사 기획원장 석법상 종 사
포교원장 석혜운 대종사 포교부장 석혜통 종 사 사정원장 석법안 대종사 문화원장 석지명 대종사 문화1부장 석도산 종 사
문화2부장 석혜주 종 사
범패교육원장 석무겸 대종사 범패부원장 석월오 종 사. 석운오 종 사
교육부장 석대명 종 사 교육부1국장 석대덕 종 사 교육부2국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1종무원 석정은 김해종무원 석청해 거제종무원 석덕운 대구종무원 석청명
창원종무원 석범일 진주종무원 석덕오 전북종무원 석설산 마산종무원 석법경(法敬)

〈비구니원〉
비구니 원로회장 석효각 비구니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효각 석청명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석법오

〈위 원 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법률위원장 이창상 중앙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 입종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